

24년 8월 목회일정

18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노회를 위한 당회
23-25일	연합수련회(김해개혁장로교회와) (창녕 온누리청소년 수련원)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6일(화)	노회 임원회(샘터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3. 초빙설교	/ 오늘 오후예배 설교는 박하림강도사(미, 칼빈대학원 교의학)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4. 성도동정	/ 1) 김용대성도 가정 - 은평시민교회 출석 2) 박하림성도(강도사) - 30일(화) 출국(미, 칼빈대학원)
5. 부산중부노회 임시노회	/ 30일(화) 14시 온천교회당
6.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8월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김명순 안내-최진언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4년 8월 23~25일(2박 3일)
- 장소 : 창녕 온누리청소년수련원(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786)
- 주제 : 가정 & 교회(강사 : 2교회 교역자)
- 회비 : 장년-5만원 S.F.C-3만원 초등부-1만원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7월	8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헌	구성본	김명순
안내	김학희	최진언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7.28.(제28-30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1:1-2(교송)

인도자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 4장(1-2)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다함께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10장(1-3)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수5:13-15, 요13:1-11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51편(1-3)

설교 ↓ 설교자

성찬과 발씻음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84편(4-6)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박하림 강도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73:28(교송)		
인도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회 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가 3장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22장(3-5)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행 17:22-34		
교 리 문 답 교 독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9편(1-2,5)		
설 교 ↓	설교자		
느낌에서 경건으로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21편		
폐 회			
* 강 복 선 언 ↓	양주동목사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성찬과 발씻김)			
1. 세례로 온 몸을 깨끗이 씻은 성도들이 죄악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이는 죄악을 행치 않게			
2. 발씻음으로 성찬상의 차별표준을 보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성찬상을 깨끗이 지키는 교회되게			
3. 주의 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항상 순결함으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1. 고신교회 안에 신실한 말씀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신학대학원을 통하여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2. 신대원이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개혁신앙의 정통과 순교적 신앙을 전수하도록			
3. 교수들이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삶을 가르치도록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위하여			
1.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그리고 복음병원이 설립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2. 고신대학교가 기독교인재양성성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실한 기독교인 학생들로 채워지게			
3. 복음병원이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직분자들과 봉사를 위하여			
1. 직분자들의 섬김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 온 성도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2. 직분자들이 맡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성전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도록			
3.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자원함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진리를 소유한 기쁨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기에 믿어야 하고, 믿고 있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내가 목사인 것이 불편하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 보다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인데... 진리에 대하여 꼭 차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시끄럽게 외치다가 문득 내가 빈 강통이란 사실이 드러나 얼굴을 붉히게 된다.

진리를 알면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지 않기에 ‘진리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게 성경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꺼린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모든 말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보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의 말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쉽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많이 말하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이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이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내가 낮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도 내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진리가 이긴다는 명제는 진리이다. 그러나 세상 역사 안에서 항상 진리가 이긴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오히려 논쟁을 통하여 진리 아닌 것이 득세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수없이 보아왔다.(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진리를 외치던 자들에 의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논쟁에서 항상 이겨서 옳음을 증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국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진리는 감출 수 없고, 감추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믿으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찌라도)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서 그 가치를 즐기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가 항상 이긴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에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진리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 분은 자신이 진리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신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그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음을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지혜로, 미신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연과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경건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축이나 느낌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주 축과 느낌이 초현실적이면서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과도 같은 축과 느낌을 결코 경건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경건이 자라남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다시 읽기: 경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뜻합니다. 혹시라도 더듬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매주 교회에서 열리는 성도의 모임과 교제와,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성찬이 그 예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아들들이 나오는 신화로 가득한 세계에서, 그것이 단지 신화라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우리가 이 연극과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불신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옆에 항상 우리가 잡을 구원의 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항상 구원의 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교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서도 그런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흐름에 내 몸을 맡긴다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을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내 몸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대로 내 죽은 영을 되살리며, 성령님이라는 구원의 끈을 항상 붙잡을 때, 우리의 경건이 자라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7월28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27장
성경봉독 요13:1-11, 수5:13-15	
설 교	성찬과 발씻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발씻음, 곧 자신을 살피야 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성찬을 제정하신 그 날 밤, 성찬예식을 제정하시기 직전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께서 기념하게 하신 성찬예식보다는 예수님의 발씻기신 모범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1. ‘발씻음 - 성찬상의 차별을 선언하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례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두 번이나 주의 성찬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2장, 6장)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즈음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공생애가 성례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성찬에 나아오는 차별의 기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길을 행하는 도중에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인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면서 “남의 발 씻어주기”를 싫어하는 바람에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 자리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막9:33-39,눅 22:24-26) 물론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는 성도의 섬김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14)

그러나 이 의식은 성찬예식을 제정하시기 직전에 행하여 진 일이며, 이는 주님께서 성찬상의 차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의 상에 나아가는 일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시는 의식을 통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오는 차별의 기준인” 내게 속한 자를 구분하는 의식으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발 씻기를 거절했다가 주님께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성찬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요 3장)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성찬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찬식에 앞서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듣자 곧 바로 “나의 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십니다.(9,10) 여기서 목욕하였다는 말은 “세례”를 지칭합니다.(행16:33) 이 말씀은 한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히6:6) 한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들과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을 찌라도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찬에 나아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발씻음 -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밟고 살아갑니다. 땅, 곧 흙은 하나님의 저주(창3:17)를 받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발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참:창 3:24/출 3:5/19:10/24:8/수5:15)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상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씻기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속을 받았고,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의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피 주의를 상을, 거룩한 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고와 동일한 것입니다(고전 11:27-29) 그리고 발 씻기우기를 거절한 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역시 바울의 언약의 저주와 동일한 것입니다(8b-고전11:30)

10b는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 발을 내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1-4,마27:21-25) 주님은 가롯 유다가 당신의 거룩한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10-21-26)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속여 성찬을 먹었고,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단에게 약하여 졌고, 탐욕에 병들었으며 결국 그의 영혼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상의 주인되신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을 숨기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30-32)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나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롯 유다와 같이 주의 상을 더럽히며, 고린도 교회 일부 성원들처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 나아올 때에 언제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을 씻고 깨끗하지만 주의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7월28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131장
성경봉독	행 17:22-34
설 교	느낌에서 경건으로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종교심은 경건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촉, 감’이 왔다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느낌은 오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이 느낌은 단순히 대단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칼빈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칼빈은 그 느낌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의 시대에는 “종교”라는 말이 “경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축인 “경건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씨앗이 경건으로 결국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 하나님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는 보편적인 종교심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지식이 뛰어났지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신에게 예배했습니다. 칼빈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으로 진정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진정한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또한 주셨습니다.

2.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경건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파했습니다.